

## 編輯後記

- ◇…人間的 頭腦는 머지않아 달나라나 火星에 까지 人間을 定着시킬 수 있을 만큼 進歩되었다.  
“火災豫防” 그런데 왜 이 問題만은 解決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?  
안타까움이 앞선다.
- ◇…「丁巳」年 올해만은 정말 큰 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, 人命과 財産의 被害는 물론이요  
火災件數도 현저히 줄어 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.  
또한 올해부터는 「冬節이 火災의 季節」이라는 말 自體가 없어졌으면!
- ◇…「火災 安全點檢」이 季刊으로 發行된지 벌써 3년이 흘렀다.  
月刊으로의 發展을 期約하고 出發된 것이 더욱 後退되어 年2回刊으로 줄어들었다.  
編輯者로서의 안타까움은 더 할 수 없다.
- ◇…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독자 제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 
期約된 그날이 닳아 올 것을 다시한번 期待해 본다.

×

×

×

火災安全點檢

(通卷 7 號)

登錄番號 바 520

登錄日字 1973年 10月 11日

〈非賣品〉

發行人 吳 琳 根

編輯人 金 雲 淑

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

서울 中區 草洞 21-9

電話(交) ㉠4106-10. ㉡1695-8

㉢0082-5 ㉣4128-9